



What's Up, OITA!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이타현인회, 유학생 OB,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해 드립니다

오이타현, 올해도 마이나비 투르 드 규슈 코스에 포함!

2024년 10월 11일(금)~10월 14일(월·공휴일) 오이타, 구마모토, 후쿠오카 개최



지난해 대회 골인 모습

‘마이나비 투르 드 규슈’는 2019 럭비 월드컵 개최를 기념한 스포츠 이벤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도로 사이클 경기입니다.

제2회를 맞는 올해 대회는 10월 11일(금)~10월 14일(월·공휴일)에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후쿠오카현에서 진행되며 국내외에서 18개 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오이타현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이타 코스 지도

10월 12일(토)에 열리는 오이타 스테이지는 오전 10시에 벳푸시 리쓰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에서 출발하여 유후인, 조자바루를 지나 히타 시내를 두 바퀴 돈 후 오하라하치만구 신사에서 끝이 나는데요.

총거리는 138km이며 이중 조자바루 구간은 이번 코스 중 가장 고저차가 큰 지점으로 무려 해발 1,000m에 이릅니다.



스파클 오이타 레이싱 팀

오이타에서는 2021년에 공식 활동을 시작한 오이타현 최초 프로 사이클링 팀 ‘Sparkle Oita Racing Team(스파클 오이타 레이싱 팀)’이 참가합니다. ‘규슈를 뜨겁게, 세계로 나가자’라는 비전과 ‘규슈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대회에서도 오이타현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0월 12일(토)에 개최되는 오이타 스테이지 대회 당일에는 벳푸시, 유후시, 고코노에정, 히타시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며, 유튜브를 통해 경기가 생중계될 예정이므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투르 드 규슈 2024’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해 ‘오이타 스테이지 특설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오이타 스테이지 특설 사이트)



‘오니기리’를 명물로 X

구니사키 오니무스비 오셋타이

지난 3월 9일(토)에 ‘오무스비(주먹밥/오니기리와 같은 뜻)’를 구니사키시의 새로운 명물로 만들고자 쓰루가와 상점가 주변 관광·교류 거점 시설에서 ‘구니사키 오니무스비 오셋타이’가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이 만든 일품 오니기리를 나누어 먹는 ‘오니기리 교환 모임’과 구니사키 시내 음식점의 숨씨를 엿볼 수 있는 오니기리 700개가 무료로 제공되는 ‘후루마이 오니기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니기리 교환 모임’ 제공 오니기리(총 21종)



‘후루마이 오니기리’ 제공 오니기리(총 9종)



히메시마 왕나비 도래지



봄의 왕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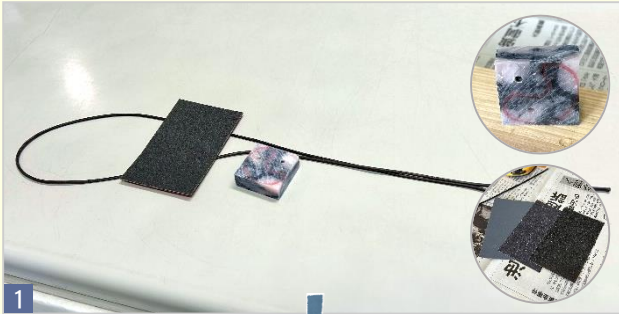
가을의 왕나비

봄(5월 초~6월 초)에는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우아한 왕나비가 히메시마촌에 자생하는 모래지치(여러해살이풀)의 꿀을 먹기 위해 남쪽에서 날아와, 히메시마촌에서 쉬 후 다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가을(10월 중순)에는 세대가 바뀐 왕나비가 등골나물의 꿀을 먹기 위해 북쪽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히메시마촌에서 쉬어 갑니다. 왕나비가 도래하는 봄과 가을에는 무료 관람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본 선사 시대(야요이 시대)의 생활 양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체험학습관에서 곡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왔는데, 집중하며 잡념을 없앨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



1



8



2



7



3



6



4



5

1 대표소에서 체험 접수 후 설명을 듣고, 제공되는 재료(활석, 사포 3장, 끈)를 챙겨 체험 장소로 이동한다.

2 톱을 사용하여 곡옥의 도안 모양대로 활석을 잘라낸다. 이때, 톱날은 끝까지 빼서 사용한다.

3 사포 3장 중 가장 굵은 사포로 각진 부분을 다듬는다. 나무판 위에 사포를 두고 곡옥을 굽듯이 간다.

4 곡선이 표현되는지 확인하며 간다. 특히, 곡옥의 목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이 될 때까지 문지른다.

5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곡옥을 문지른다. 이때, 나무 막대에 사포를 말아서 갈면 보다 용이하다.

6 두 번째 사포로 곡옥을 문지르며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칠어진 곡옥의 표면을 다듬는다.

7 곡옥을 물에 담그어 세 번째 사포로 분진을 닦아낸다. 페이퍼 타월로 물기를 닦은 후 끈을 연결한다.

8 나만의 동그랗고 귀여운 곡옥 목걸이 완성!(*체험 소요 시간: 약 1시간 30분)

※시설 직원이 시범을 보여 주며 체험하는 동안 가까이 있으므로, 잘 모르겠다면 편하게 물어보자.

호버가 있는 미래와 기대

기사 작성: 중국 국제교류원 양지아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겨 버린 오늘 소개할 장소는 십수 년 만에 부활하는 호버크라프트(공기부양정) 터미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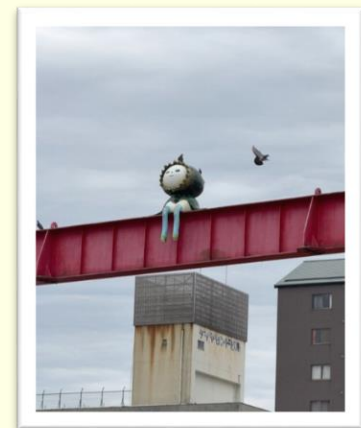
건물 외관은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상적인 느낌을 주며, 내부는 삼나무 목재를 아낌없이 사용한 덕에 높은 기둥이 잇따라 늘어서 있어 마치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날씨가 좋으면 커다란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밤이 되어 천장에 달린 펜던트 조명이 켜지면 나무 사이로 울려다 보이는 밤하늘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터미널은 대합실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지역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이용객들이 색다른 여행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되겠지요.

터미널 시설 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장소는 옥상의 전망대로, 기다란 경사로를 천천히 올라가면 눈 앞에 웅대한 바다가 360도로 펼쳐집니다. 마치 배의 갑판 위와 같은 듯한 이곳에서 있자니 곧 시작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널찍한 객실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고 방음 성능이 뛰어나며, 에어 쿠션이 설치되어 배의 흔들림을 줄여 준다고 합니다.

호버크라프트가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이 시작되면 오이타 공항에서 오이타 시내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



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국 우한에 있는 양쯔강 페리가 떠오릅니다. 매일 많은 사람이 페리를 타고 양쯔강의 이 끝과 저 끝을 오고 가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둘러싸인 지역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매일 타도 특별하고 낭만적인 것'으로 보일 뿐인데요, 어쩌면 오이타의 호버크라프트도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특별한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비고에서 처음 본 총길이 26m, 프로펠러 지름 3.5m 크기의 호버크라프트는 마치 잠자는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지와는 다른 시점에서 오이타를 보게 되므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듯한데요. 아침 햇살에 물드는 산, 날아가는 물새, 햇볕에 반사되어 빛나는 바다, 해 질 녘 무렵에 하나둘 켜지는 거리의 불빛 등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오이타의 풍경은 분명 신선한 감동을 줄 것입니다.

견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터미널 근처에 설치된 오브제 작품 '맛테루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문 위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이 작은 괴물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상냥하게 배웅해 주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부터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될 오이타를 찾는 모든 여러분께, 호버크라프트 창문을 통해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의 풍경이 멋진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노지 in 오이타

국제교류원의 일상

- 38화 -



글/그림 노지영

“노지상은 주말에 뭐해요?”
라는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기에
오늘은 저의 일상을 낱알이 밝혀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말 별거없어요

노지
잡순이품



제가 잡순이라는
사실을 영두에 두시고
가 보자고요~

① 아무것도 안하고 정말 푹 쉬기
(= 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



인스타그램 x,
유튜브, 쇼 x 등
3시간 쯤

② 보고 싶었던 영상들 보기



주요 러닝타임이 긴 영화나 드라마를 봐요.
미뤄두었던 애니메이션들도 보기도 하고요!



③ 혼자서 맥주 한잔하기
(보통 ②와 세트로 진행)



④ 밀린 집안일 하기: 빨래, 설거지, 요리...



⑤ 친구랑 시간 보내기: 드라이브, 식사...
(최근에 빈도가 늘었어요!)

OO랑 먹은 삼겹살
진짜 맛있었는데...



이런 평범한 일상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제 내년이면 오이타를 떠나야 하니
올해는 좀더 활동적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여
얼마 전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혼자 조용하게
책을 읽고 왔어요!



[알림] 미국 국제교류원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임하였습니다.

이너 피스, 녹나무



한국 국제교류원 노지영

7년 전, 일본 어느 지역의 신사에서 대나무 숲 속에 있는 커다란 녹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녹음에 둘러싸인 약 3천 년이 된 녹나무를 처음 본 순간 거대한 크기에 압도당하는 듯했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이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녹나무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일본 여행을 할 때 그 지역의 유명한 녹나무를 보러 가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길이 닿는 대로 동네를 건다가 도착한 '가스가 신사'에서 울창하게 가지를 뻗은 높이 20m의 약 천 년이 된 거대한 녹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거목이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녹나무가 있어 언제든 보러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경내에서 머리를 비우고 바람에 흔들리는 녹나무의 초록을 바라보고 있자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평화로운 장소이니, 여러분도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이곳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의 여운



중국 국제교류원 양지아

여름은 저에게 가장 특별한 계절입니다. 제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 년 중 가장 활기가 넘치는 시기이기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많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름의 매력 중 하나인 불꽃놀이를 지난 5월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보러 다녀왔는데요. 당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유카타를 입고 불꽃놀이를 볼 것이라 생각해 료칸(숙박 시설)의 유카타를 빌려 입고 나갔다가, 유카타를 입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늘에 숨어 불꽃놀이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훗날 동료에게서 여름에 하는 불꽃놀이 때에는 다들 유카타를 입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겪은 게 있는 지라 믿지 않았는데요(웃음). 하지만 7월 말에 보러 간 두 번째 불꽃놀이 때에는 정말로 유카타를 입은 사람들이 포장마차 사이를 걸어 가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입추가 지나며 잔디와 나뭇잎이 서서히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피고 지는 '여름'이라는 이름의 불꽃놀이가 주었던 여운을 그리며, 얼마 남지 않은 여름도 즐겁게 보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전 세계에 소개해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현인회 활동(친목회), 유학생 OB의 근황 등을 알려 주세요!

(※양식 자유)

〈기사제공/문의〉

- 발행: 오이타현 국제정책과
- 담당: 쇼노(生野), 나카야마(中山)
- 메일: a10140@pref.oita.lg.jp

募集中!

